

#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와 치유서의 관계 분석 연구\*

## A Study on Relation Analysis between Book and Category in Bibliotherapy Catalog

백 재 은 (Jae Eun Baek)\*\*

### 초 록

올바른 독서치료를 위해서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과 증상에 대한 자가판단과 함께 치유서의 올바른 선정 및 접근이 필요하다. 이용자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황별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치유서에 접근하지만,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자신의 복잡한 상황 및 증상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단어 혹은 키워드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연령별 카테고리를 제외한 1개 혹은 최대 2개의 상황별 카테고리를 제공하며, 이로 치유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용자가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카테고리에 접근하는 만큼, 이용자의 접근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개의 카테고리 보다는 복수의 카테고리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치유서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로서 국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과 치유서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대표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하여 카테고리간의 매핑과 크로스워크를 실시하였고,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 카테고리를 분석하였다.

### ABSTRACT

For bibliotherapy, users should understand their own life situation, select and access the book (self-help book). User access to book through situation catalog (or list) in reading list, but user is difficult to define and simplify in one word after understanding their own situation. Catalog of bibliotherapy reading list classifies books using one situation category or maximum of two categories other than the age-specific classification. In this study, the author approached and analyz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bliotherapy and reading list, in order that access more efficiently to book what user wants. Bibliotherapy reading-list by using mapping and crosswalk between categories, and analyzes category of reading lists through comprehensive review.

키워드: 독서치료, 독서치료 독서목록, 매핑, 상황, 상황별 카테고리, 치유서, 카테고리

Bibliotherapy, Category, Keyword, Mapping, Reading List, Self-help Book, Situation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37624).

\*\* 덕성여자대학교 정보연구소 연구교수(jaeeunb1979@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 2015년 5월 31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6월 17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 217-239,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2.217]

## 1. 서론

20세기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전 세계가 놀랄만큼 단기간 고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현대의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사람들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감정, 상처, 치유 그리고 정신건강 등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관심은 정신건강의 치료법에 대한 개발로 이어졌고, 독서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로 발전되었다. 현재는 치료법의 확산과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문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신건강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자가치료법」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가치료법」이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스스로 파악한 자신의 상처를 직접 치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자가치료법이 개발 및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치료법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으로는 도서를 매체로 이용하여 치료하는 “독서치료”가 있다.

독서치료는 독서치료 참여자가 직접 도서를 선정하고 읽으면서,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여 치료에 도달하는 자가독서치료법이다(원동연 외 2013).

올바른 독서치료를 위해서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과 증상에 대해 정확

한 자가판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과 증상에 적합한 도서, 즉 치유서(이하 치유서로 표기)를 선정한 후 독서를 해야 한다. 다만, 복잡한 상황과 증상으로 인해 자가판단이 어렵거나, 증상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치유서의 선정과 접근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는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혹은 참고 봉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독서치료 전문가에게 도서를 추천 받아 치유서에 접근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21세기 독서치료에 대한 효과와 함께 필요성과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자가독서치료법의 일환으로 자기조력 도서(self-help book)가 등장했고,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자가치료를 돕고, 치유서를 제공해주는 독서치료 도서목록(치유서 목록)의 개발 역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독서치료 도서목록은 세계 각국의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그리고 기관 등에 의해서 개발 및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상황별 도서목록(아동 및 청소년용)을 시작으로, 남산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산남구도서관 그리고 울산남부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과 기관에서 독서치료 도서목록이 생산되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생산되고 있다.

독서치료 도서목록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상황별 카테고리를 통해서 치유서에 접근하게 된다. 독서치료에서 ‘상황’은 이용자가 책을 읽고 싶어할 때의 모든 상황(신체적, 주변적, 심리적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한윤옥 2004).

상황별 카테고리<sup>1)</sup>는 기본적으로 치유서를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치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워드의 역할을 한다.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과 증상을 단어로 변환하고, 변환한 단어와 카테고리의 비교를 통해서 치유서에 접근한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이용자의 상황과 증상을 간단한 단어로 압축시킨 키워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황별 카테고리는 이용자의 이용자의 접근 효율성은 물론 접근최단성,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접근점<sup>2)</sup>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연령별 카테고리를 제외한 1개 혹은 최대 2개의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여 하나의 카테고리(혹은 키워드)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다양한 상황과 증상을 다루고 있는 치유서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 치유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치유서는 복합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수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이 치유서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용자에게 있어서 상황별 카테고리가 충분한 접근점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상황과 증상'에 따른 복수의 카테고리화, 이용자의 접근 용이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한 카테고리의 개발과 작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적합한 치유서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도구의 역할을 하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였고, 3장에서 관련연구를 나열하였다. 4장에서는 국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과 카테고리의 분석을 위해서 카테고리 간의 매핑과 크로스워크를 실시하였고, 5장에서는 직접적인 예시를 바탕으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화 치유서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6장에서는 결론은 서술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독서치료와 치유서

독서치료는 biblio(책 혹은 문학)와 oepatteid(치료하다 혹은 도움이 되다)부터 파생된 용어로, "책의 도움을 받다 혹은 책으로 치료하다"라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술할 수 있다.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작성 및 기술되고 있다.

1941년 처음으로 독서치료를 정의한 Dorland의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에 의하면, 독서치료는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책의 이용과 독서'라고 기술하고 있고, 1961년 Webster의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서 독

1) 카테고리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개념 및 속성에 따른 분류 혹은 범위를 의미하며 비슷한 동의어로 범주가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상황과 증상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2) 본 논문에서 접근점은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독서치료 독서목록내의 치유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서치료는 '독서를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내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정신의학을 위해서 독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헌정보학 온라인 사전(ODLIS: 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독서치료를 '정신 질환이나 감정적 장애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의 회복을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독서프로그램에서 계획한 콘텐츠에 근거하여 선정된 독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ABC-CLIO). 즉, 과거 독서치료는 정신병원의 환자를 위해서 혹은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독서치료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Rubin 1978).

독서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이용자, 치유서 그리고 독서(도서를 읽는 행위)이다. 김순화에 의하면, 독서치료는 책 속의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 하여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통찰의 과정을 거쳐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하는, 즉 주관적인 독서행위(김순화 2004)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김정근은 독서치료에 대해 '독서치료에서 마음의 병을 도와주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독자 자신이고, 그것을 돕는 이는 책(도서)이며 독서행위 자체(김정근 2004).'라고 서술하고 있다.

독서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이용자의 치료를 도와주는 중요한 매체이자 도구는 바로 치유서이다.

독서치료에 있어서 치유서에 대해 특별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 치유서는 치유서의 범위, 내용, 조건, 저자 등과 같은 요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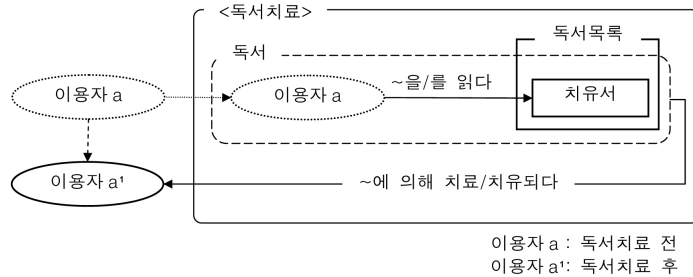
다. 그리고 치유서는 꼭 좋은 도서일 필요가 없다. 문학을 비롯하여 비문학, 소설 혹은 비소설, 전문서적 심지어 만화까지 모든 종류의 도서가 치유서로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학은 독자,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질병 혹은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이용될 수 있다(Aiex 2006; Abdullah 2002; Schrank and Engels 1981; Mohr, Nixon, and Vicker 1991).' 또한, 장르에 있어서도 픽션, 논픽션에 관계없이, 치유서는 "픽션도 될 수 있고 논픽션도 될 수 있다. 상황에 부합하여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보통 구분하지 않고 적용한다(김정근 외 2009)."

앞서 언급한 개념과 정의를 바탕으로 독서치료와 치유서에 대해 정리하면, 독서치료는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한 치유서를 읽고 치료하는 것으로, 독서치료와 치유서는 서로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도서를 통해서 치유에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이들은 모두 치유서로서 선정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독서치료에서 치유서와 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능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영식 2006)을 나타낸다.

독서치료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관계는 <그림 1>에서 보여준다. <그림 1>은 독서치료 전후의 이용자(a, a')가 독서치료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 2.2 독서치료 도서목록과 카테고리

독서치료 도서목록은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



<그림 1> 독서치료 구성요소의 관계

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목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용자가 치유서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서 모음집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독서치료 독서목록으로는 남산도서관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울산남부 도서관의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목록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이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일반 독서목록과 달리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과 함께, 자신의 '상황과 증상'을 가지고 원하는 치유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독자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해야 하고(한국도서관협회 2004), '상황'이 우선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한윤옥 2003).

대부분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상황'을 중요시하여 작성한 상황별 독서목록으로,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 역시 대부분 이용자의 '상황'을 중요시하여 작성한 상황별 독서목록이다.

상황별 독서목록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에서는 한윤옥에 의해 제시된 상황별 독서목록의 의미를 나열하였다. 한윤옥은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의미를 서지통정의 측면에서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황별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첫 번째로 문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도서관에서 실효적 통정<sup>3)</sup>을 실현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 서지통정 도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인적요소가 개입된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도서들의 모음인 독서목록이 도서를 단행본과 같은 출판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물리적인 단위보다는 내용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서지의 개별화로, 독자를 최대한 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3) 문헌을 기술하고, 기술항목 중에서 저작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는 접근점을 추출하여 검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서지통정이다. 이에 반해, 실효적 통정은 사람이 문헌을 읽을 때의 목적과 미치는 가치까지 염두에 둔 서지 통정이다(한윤옥 2004).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한윤옥 2004)”고 기술하고 있다.

상황별 독서목록에 대한 설명과 한윤옥에 의한 독서목록의 의의를 종합해보면, 상황별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이용자의 목적과 상황,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치를 중요시 해야 한다. 그리고 독서목록의 개발을 위해서 이용자의 모든 면(상황과 증상)을 파악하여 이용자의 중심으로 작성하고, 치유서를 선정해야 한다.

이용자가 도서에 접근하거나 혹은 도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접근점(예를 들면 저자명, 서명, 주제명, 키워드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다양한 접근점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도서를 검색하는 반면, 독서목록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원하는 도서를 찾기 위해서 상황별 카테고리를 이용한다. 즉,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의 유무와 접근을 도와주는 접근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치유서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2개의 상황에 따라서 검색방법을 선택한다. 우선, 치유서에 대한 서지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의 검색방법은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일반도서 검색 과 동일하다. 반면에 치유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주로 치유서를 나열하고 있는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치유서에 접근한다. 정리하면,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이용자가 치유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도, 자신의 ‘상황과 증상’을 토대로 원하는 치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이용자에게 있어 치유서의 검색도구로서, 원하는 치유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한윤옥은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역시 독서목록 내에서 이용자와 치유서를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역시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고 구성되어야 한다. 독서치료 독서목록과 카테고리의 관계, 카테고리과 치유서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은 4장과 5장에서 기술한다.

### 3. 관련 연구

#### (1)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이현실(2010)은 4개의 대학도서관(Oxford Brookes 대학도서관, Edinburgh 대학 도서관, Dublin대학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한 독서치료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각 도서관의 독서치료 주제목록을 비교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Queen Margaret 대학도서관과 Brunel 대학도서관을 추가하여 대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주제목록간의 크로스매핑을 실시하였고, 매핑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구조화 한 대학생의 발달적 독서치료 주제목록을 주제별(대·중·소주제)로 작성하여 제안하고 있다(이현실 2010).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독서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형태적으로 연구하거나, 독서목록간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주제목록간의 분석을 위해서 국내

외 독서치료 독서목록간의 목록의 주제를 비교하고 있고, 이를 상세한 범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실시한 독서치료 주제목록간의 비교를 위한 매핑은 본 연구의 독서목록 카테고리간의 매핑과 접근 방법이 다르지만,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분석을 위해서 매핑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큰 관계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독서치료 주제목록내의 용어간의 매핑 방법을 참고하였다.

(2)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한윤옥(2003)은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중요성, 조건, 그리고 목록 작성시 필요한 기초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치료 대상자의 상황 및 범주를 정리하여 기술하였고,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윤옥은 상황별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에서의 상황을 총 3개의 분류기준 -생물학적 특성, 공간과 관계에 따른 요소, 독자적인 증상- 과 분류체계 -1차 생물학적 특성, 2차 공간적 특성, 3차 관계 특성- 로 제안 및 기술하고 있다(한윤옥 2003).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기초요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서, 우선 저자는 독서치료에 대한 기본 개념, 특히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한 개념들은 본 논문의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대한 개념을 작성하는 이론적 배경에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황설정을 참고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Ⅱ: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설정 및 분류 체계 예시

한윤옥(2004)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독서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별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있어서 상황의 역할과 조건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각종 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사례, 연구, 논문, 독서목록의 분석을 실시하여 나열 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논문(한윤옥 2003)에서 제시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상황설정 분류체계를 3차 기준 -1차 연령/성별 기준, 2차 공간 기준, 3차 관계 기준- 으로 보다 상세하게 정리 하여 십진 분류식으로 전개하고 있다(한윤옥 2004).

상황은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있어서 기본개념이자 필수 개념으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작성과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있어서 상황의 중요성과 정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특히 독서목록의 의의를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 참조하여 나열하였다. 그리고 상황별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본 연구의 4장과 5장에서 참고하였다.

이 논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참조한 부분은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황 조사이다. 상황 조

사를 위해서 독서목록에서 나타난 상황단어를 나열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매핑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Introducing Bibliotherapy in Public Libraries of Jaffna district: an Exploratory Study

Arulanantham와 Navaneethakrishnan(2013)은 북부 스리랑카 지프나 지역에서 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독서치료와,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실시한 독서치료법, 독서치료의 적합성 등에 대해 나열하고 있고, 독서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Arulanantha and Navaneethakrishnan 2013).

이 논문은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과 지역의 제한을 가지고 독서치료에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독서치료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의 방법론보다는 포괄적인 개념, 즉 도서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독서치료에 대한 기본 개념, 독서치료의 역사, 과거와 현재의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를 연구에 참고하였다.

#### 4.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 분석

##### 4.1 독서목록과 카테고리 분석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분석과 매핑은 앞서

2.2장에서 언급한 4개의 독서목록 중 울산남부도서관 독서목록을 제외한 3개의 독서목록(남산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목록은 카테고리없이 치유서를 나열하고 있고, 카테고리를 제공한 독서목록(1~3호)의 경우, 현재 도서관에서 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3개 도서관에서 발행된 모든 독서목록(남산도서관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2007~2014/총 8개, 부산대학교 도서관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2014/증보판 1개,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2007/증보판1개), 총 10개의 독서목록을 모두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개의 독서목록을 이용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독서목록 카테고리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각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구성에 대해 간단하게 나열하면, 남산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은 동일하게 1차 연령별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1~3차 분류체계(1차: 연령 > 2차: 상황 및 증상[상위개념] > 3차: 상황 및 증상[하위개념])로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고, 이에 반해,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목록은 연령별 카테고리 없이 1차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로 구성하고 있었다.

1차 혹은 3차의 분류체계로 구성된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연령을 중심으로 크게 나뉘져 있기 때문에, 연령별에 따라서 카테고리 용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각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의 개수와 반복 카테고리 용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각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를 수(數)로 표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남산도서관의 독서목록은 1차 연령별 카테고리에서 크게 2개(성인, 청소년·어린이)로 나뉘지고, 성인 2·3차 카테고리에서 각각 7개, 35개, 청소년·어린이 2·3차 카테고리에서 각각 7개, 31개의 카테고리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총 14개, 66개의 용어가 2·3차 카테고리에서 나열되어 있었고, 연령별 카테고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용어는 '자기계발, 부모, 신체장애, 배려, 자아정체감'이 있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은 1차 연령별 카테고리에서 3개(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분류되면서, 성인 2·3차 카테고리는 각각 6개와 28개, 청소년 카테고리는 2·3차 카테고리의 구분없이 6개, 마지막 어린이 2·3차 카테고리에서는 각각 8개와 33개의 카테고리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총 21개, 67개의 용어가 2·3차 카테고리에서 제시되고 있었고, '스트레스, 여자와 남자, 부모, 슬픔, 화, 용서, 인터넷 중독, 신체장애, 자아정체성'이 반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연령별로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 이는 연령별에 따라 상황과 증상에 대한 관점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목록은 반복없이 총 30개의 용어가 제공되고 있었다.

#### 4.2 카테고리간의 매핑과 크로스워크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간의 매핑은 앞서 언급한 총 10개의 독서목록을 이용하여, 각 독서목록에 표기된 카테고리를 모두 추출하여 수집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매핑은 각 독서목록에서 추출한 카테고리 용어간의 비교를 시작으로 진행하였다.

매핑 방법은 수집한 카테고리 용어를 가지고, 용어간의 의미동일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A목록의 정신건강, B목록의 정신건강, 그리고 C목록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에서 정신건강은 모든 목록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단어이고, 용어의 의미도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크로스워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핑에서 용어의 반복이 있을 경우는 반복용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우선, 연령별 카테고리로 구성된 독서목록내에서 동일한 용어가 연령별로 반복될 경우는 반복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된 용어 옆에 「\*」을 부여하여 표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표기했던 카테고리 용어가, 다른 독서목록의 용어와의 매핑을 위해 반복으로 작성될 경우는 반복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기하였다. <표 1>은 전체 매핑표의 일부분이고, 전체 매핑표는 [부록 1]에서 보여준다.

독서치료 독서목록 카테고리간의 매핑으로 카테고리 용어의 범주, 분포도 그리고 카테고리 공통용어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매핑으로 카테고리 용어의 범주를 살펴본 결과, 3개 도서관의 독서목록은 모두 비슷한 범주내의 용어를 이용하여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었다. 1~3차 카테고리로 구성된 남산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을 비교한 결과, 1차 연령별 카테고리를 제외한 2차·3차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 용어들은 특별한 차이 없이 동일한 범주내에서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산도서관 독서목록에서의 가정/가족

〈표 1〉 우리나라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용어간의 매핑 예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남산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관협회의 상황별 독서목록		
1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부모와 자녀	성인	가정/ 가족관계	자녀 부모*	성인	가정/ 가족관계	아들과 딸 부모*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일탈	핸드폰중독	청소년	휴대폰중독	
		가족관계	부모*	어린이	가족	부모*
		청소년 일탈	핸드폰중독			

관계와 한국도서관협회 독서목록에서의 가정/가족관계와 같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1차 상황별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목록은 남산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 목록의 3차 카테고리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하위개념의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간의 용어 비교에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실시한 카테고리 용어의 분포도 조사는 카테고리 용어의 범주와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남산도서관의 독서목록은 1차 카테고리: 성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은 1차 카테고리: 어린이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카테고리 용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남산도서관 독서목록의 성인 카테고리내의 「직장/성공/사회」와 「건강/질병/죽음」, 한국도서관협회 독서목록의 어린이 카테고리내의 「가족, 정서문제」가 다른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보다 조금 더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독서목록에 비해,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1차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로 구성하고 있지만, 2개의 독서목록

과 매핑한 결과, 카테고리 용어가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수 있었다. 다만, 카테고리 용어의 범위가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는지는 목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간의 매핑을 통해서 저자는 3개의 독서치료 독서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살펴보았다.

공통용어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령별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로스워크를 통해서 모든 연령대를 커버하고 있고, 성인과 어린이/청소년에 용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 목록 역시 포함하여 매핑을 실시하였다.

공통용어는 1차 연령별 카테고리의 성인과 청소년/어린이로 분류해서 나열할 수 있다. 우선, 성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 강박(강박증), 마음의 평화, 부모, 분노, 성인아이, 여자와 남자, 우울(우울증), 용서, 정신건강, 죽음’ 총 11개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청소년/어린이 카테고리에서는 ‘감정, 성폭력, 중독’ 총 3개의 단어가 공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들 공통용어는 각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개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독서치료 독서목록

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 연령별로 분류하여 나열했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이들 용어는 치유를 원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분석과 카테고리간의 매핑을 통해서, 현재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대부분이 서로 중복되거나 비슷한 범주내의 용어를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핑을 통해서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분포도와 공통용어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카테고리 용어의 범주가 거의 비슷한 반면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카테고리 용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용어는 서로 비슷한 범주 내에서 작성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카

테고리 용어는 적고, 각 독서목록마다 중요시하는 카테고리가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조사와 카테고리간 매핑결과는 <표 2>에서 간단하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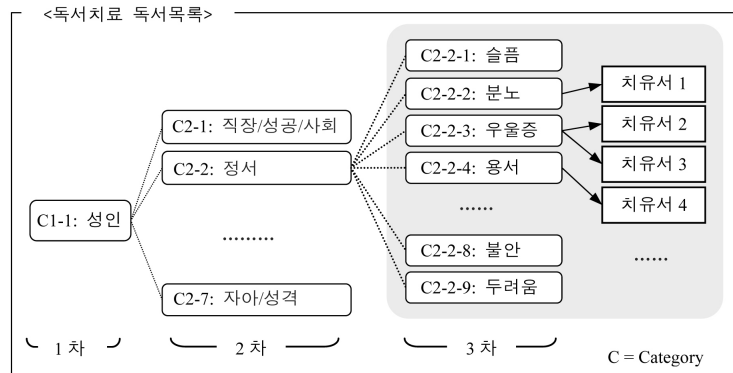
### 4.3 카테고리화 치유서의 관계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카테고리화 치유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목차, 카테고리, 내용(치유서, 치유서의 서지사항, 해제), 색인 등을 가지고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상황별 카테고리화 구성된 부산대학교 독서목록은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다수의 치유서를 분류 하고 있고, 1~3차의 분류체계(1차: 연령과

<표 2> 우리나라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간의 매핑 결과

		남산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관협회의 상황별 독서목록				
카테고리	범위	1, 2, 3차 분류			1차 분류	1, 2, 3차 분류				
	내용	1차: 연령별 2차: 상황맞증상(대분류) 3차: 상황맞증상(소분류)			1차: 상황맞증상	1차: 연령별 2차: 상황맞증상(대분류) 3차: 상황맞증상(소분류)				
	개수	1차	2차	3차	1차	1차	2차	3차		
		2개	7개	35개			30개	3개	7개	28개
			7개	31개					6개	*
	반복 여부	N	Y	Y	N	N	Y	Y		
	반복 용어	N	자기계발, 부모, 배려, 신체장애, 자아정체감		N	N	스트레스, 부모, 여자와 남자, 슬픔, 화, 용서 인터넷 중독 신체장애, 자아정체성			
공통 용어	성인	가족, 강박(강박증), 마음의 평화, 부모, 분노, 성인아이, 여자와 남자, 우울(우울증), 용서, 정신건강, 죽음 (총 11개)								
	청소년/어린이	감정, 성폭력, 중독 (총 3개)								



<그림 2> 우리나라 독서치료 도서목록의 카테고리화 치유서의 관계

2·3차: 상황 및 증상)로 구성된 남산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 목록은 3개의 분류체계 중 3차 카테고리화 치유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는 즉, 도서목록내에서 치유서는 하나의 카테고리 혹은 가장 세부적인 카테고리(3차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산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 목록은 3개의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2차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상위개념)는 치유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다만, 2차 카테고리는 1차 연령별 카테고리화 3차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하위개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1차 혹은 1~3차 분류체계와 관계없이, 각 독서치료 도서목록은 1개의 카테고리에 다수의 치유서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크게는 카테고리화 치유서의 관계가 1:∞ 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작게는 1:1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1:1관계란 한 권의 치유서가 1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1개의 카테고리에 다수의 치유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

을 의미한다. 국내 독서치료 도서목록인 부산대학교 도서관, 남산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목록 모두 카테고리화 치유서가 1:1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내 독서치료 도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화 치유서의 관계는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국내의 독서치료 도서목록의 구성과 함께, 치유서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카테고리화 3차 카테고리(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 - 하위개념)라는 것을 보여준다.

## 5. 독서치료 도서목록의 카테고리화 치유서의 관계

### 5.1 카테고리의 역할과 중요성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는 '상황과 증상'이라고 하는 특수한 범주를 가지고,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치유서에 접근한다. 이용자는 독서치료 도서목록의 이용에 앞서, 자신의 상황과 증상을 단어로 정리하고, 해당 단어

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범주의 카테고리에 적용하여 치유서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카테고리는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단어로, 원하는 치유서를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워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카테고리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분류 혹은 범위(우리말 시소러스 2013)로, 키워드는 서지데이터베이스내의 타이틀, 내용, 초록에서의 중요한 단어 혹은 어구(ODLIS)로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카테고리화 키워드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할은 다르다. 다만, 두 단어는 모두 기술대상에 관한 주제, 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카테고리를 통해서 치유서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키워드의 역할과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현재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2권의 치유서를 직접 예시로 삼아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첫 번째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토마스 E. 엘리스 2005)는 번역서로,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목록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다. 이 치유서의 카테고리는 각 독서목록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은 1차: 성인, 2차: 성격과 정서, 3차: 강박증으로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독서목록은 자기학대로 분류하고 있었다. 치유서와 카테고리를 연결해주는 독서목록의 목차와 색인을 살펴보니, 각 독서목록은 앞서 기술한 강박증과 자기학대로 치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치유서 '나는 원래 행복하다'(스티븐 S. 일라디 2013) 역시 번역서로, 남산도서관(2013년)

의 독서목록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목록에서 치유서를 제공하고 있다. 남산도서관의 독서목록은 이 치유서를 1차: 성인, 2차: 정서, 3차: 우울증으로 분류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목록은 우울로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있었다.

간단한 예시로 두 권의 치유서의 카테고리 분류를 살펴본 결과, 치유서는 각 독서목록마다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각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키워드, 예를 들면 '자살하고 싶을 때'의 강박증 혹은 '나는 원래 행복하다'의 우울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해당 독서목록에 접근한다면, 이용자는 원하는 치유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가 아닌 다른 키워드로 독서목록에 접근한다면, 이용자는 치유서에 접근할 수 없고, 이용자의 접근효율성과 접근최단성 낮아지게 될 것이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본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상황 및 증상별로 치유서를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카테고리를 통해서 원하는 치유서에 접근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워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다.

## 5.2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

독서치료에 있어서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기존의 추천 도서목록이나 선정 도서목록 등과 다른 점은 바로 이용자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 2004).

‘상황’의 개념은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기관이나 논문 등에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여러 관점에서 제공하는 정의와 개념 중에서 한 윤옥(2004)에 의한 정의를 서술하면, 상황별 독서목록에서의 ‘상황’은 “독자의 조건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영유아기부터 성장기를 거쳐 사람들에게 형성된 내재적 자아 및 심리가 현재적 상태로 연결되는 심각한 정신적 갈등 상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처리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는 이용자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 환경으로 인해 생성된 정서와 성격 같은 내면적인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독서치료에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상황을 직접 예시화하여 상황간의 관계도를 작성하였다. 관계도에서 사용한 단어는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테고리 용어를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단어간의 관계는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 시소러스,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사전, 각종 논문과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조사하여 결정하였다. 관계도는 <그림 3>에서 보여 준다.

상황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정폭

력<sup>4)</sup>이라고 하는 행위를 시작으로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를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연결지었다. 가정폭력은 가정위기라고 하는 상황과 함께 아동학대라고 하는 행위를 동반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발생한다.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가정위기는 아동학대와 함께 이혼<sup>5)</sup>이라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이혼은 한 가정 부모<sup>6)</sup>라고 하는 상황과 함께 아동학대를 다시 동반해서 가져올 수 있다. 가정폭력은 화/분노<sup>7)</sup>와 같은 감정에서 발생되는데, 화/분노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위기와 아동학대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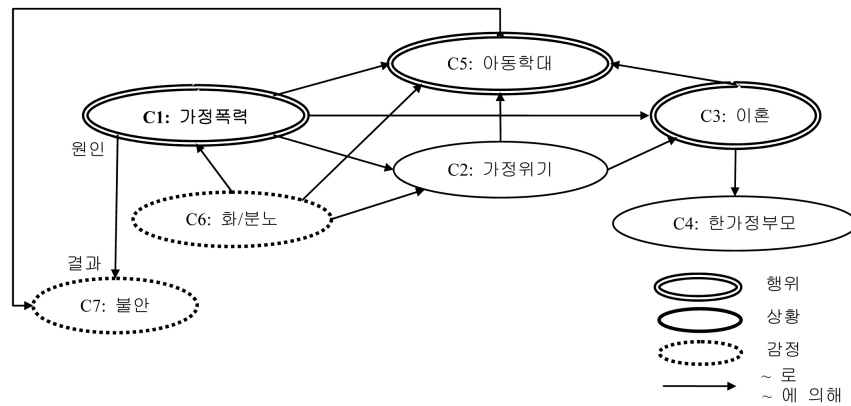
가정폭력으로 시작된 상황간의 관계도는 가정폭력이 단순한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이혼, 가정위기와 같은 다른 상황과 행위로 이어지고, 화/분노라는 감정이 수반되면서 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가 엮어져 계속 순환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독서치료에 있어서 상황의 관계가 인간의 행동, 감정, 그리고 상황이 모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독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상황’도 이처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정폭력은 개인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 행하는 신체적인 폭력행위와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녀학대, 배우자 학대, 부모학대를 포함하고 있다(우리말 시소러스: Gelles and Straus 1979; 신민섭 외 2004).

5) 위기가족은 이혼가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신재주 2004).

6) 2013년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 내(87%)에서 부모(83.8%)에 의해 발생했다.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도 전체의 40%를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경우 2012년 아동학대 신고 146건 중 60건이 한부모가정에서 발생, 전체의 41.1%를 차지해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7) 가정폭력 가해자 826명을 분석한 대법원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원인 가운데 1위로 ‘우발적 분노에 의한 경우’가 41.8%를 차지했다.



〈그림 3〉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 용어를 이용한 상황 관계도의 예시

### 5.3 복수 카테고리의 필요성

4장에서 보여준 국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분석에서 치유서는 1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는 한 권의 치유서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 권의 치유서에 1개의 키워드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5.1장에서 제시한 치유서의 예시처럼 한 권의 치유서는 다양한 카테고리 (혹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독서치료에서 '상황 및 증상'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상황별 카테고리는 이용자의 상황과 증상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관점의 키워드 혹은 복수 카테고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치유서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닌 다중의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5.1장과 동일한 예시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Choosing to Live:

How to defeat suicide through cognitive therapy의 번역서로, 국내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와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치유서는 목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선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은 1차: 성인, 2차: 성격과 정서, 3차: 강박증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독서목록은 1차: 자기학대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는 5.1장에서 언급한 부분이다.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번역서로, 국외의 독서목록과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치유서를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검색을 실시한 결과, 국외에서는 독서치료 독서목록(goodreads), 치유서 가이드 웹사이트(The Guide to Self Help Books), 도서의 웹사이트(Amazo 등)에서 이 치유서를 제공하고 있었고, 세 곳에서 모두 자살로 분류하여 주제어를 자살로 표기하고 있었다.

국내외의 독서치료 독서목록들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이 치유서의 카테고리를 조사한 결과,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강박증, 자기학대, 그리고 자살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

어 있었다. 만약, 치유서에 대한 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카테고리(혹은 키워드)는 계속 추가될 것이다. 즉,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적게는 3개, 많게는 그 이상의 카테고리(혹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치유서는 기관이나 도서관의 개별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고,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치유서가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분류되기도 한다. 치유서를 분류한 카테고리가 독서목록마다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었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치유서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양한 만큼, 카테고리 역시 각 기관과 도서관에 따라서 분류기준이 다양할 수 있다.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각 독서목록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카테고리(강박증, 자기학대, 자살)를 부여하여 제공하고 있다. 치유서는 여러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독서목록에서는 다중의 카테고리가 아닌 1개의 카테고리만을 이용하여 치유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만약 자살에 관한 치유서를 원하는 이용자가 강박증으로 분류된 독서목록A를 이용한다면, 이용자는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복수 키워드(혹은 주제어)를 가지고 있는 치유서라고 해도 이처럼 각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1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치유서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는 제공되는 1개의 카테고리 외의 다른 관점에서 치유서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만약, 복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치유서를 1개의 카테고리가 아닌, 치유서를 표현하는 다중의 카테고리 혹은 키워드를 모두 제공한다면,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치유서를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용자의 접근효율성과 접근용이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 6. 결 론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아픔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사람들은 점차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 치료와 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치료방법의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는 자가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를 이용한 치료, 즉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독서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서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개발 및 생산되기 시작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일반 독서목록과는 다르게, '치료'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과 이용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된 목록이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각 기관 혹은 도서관에서 개별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작성되는데,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상황별 독서목록이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카테고리는 치유서



를 상황 및 증상으로 분류하는 역할과 이용자가 적합한 치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워드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이용자들에게 상황에 맞는 치유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는 치유서라고 해도 하나의 범주만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치유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독서치료 독서목록과 치유서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카테고리간의 매핑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치유서는 연령별을 제외한 1개 혹은 최대 2개의 상황 및 증상별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치유서와 카테고리는 1:1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 권의 치유서에 1개의 카테고리(혹은 키워드)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유서를 직접 예시로 들어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다중의 카테고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직접적인 예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동일한 한 권의 치유서가 다양한 카테고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과 각 독서목록마다 제공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치유서가 다양한 범주를 가

지고 있는 반면, 모든 범주가 독서목록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리해서 말하면, 한 권의 치유서에는 가능한 많은 다중의 카테고리(혹은 키워드) 부여가 필요하고, 복수 카테고리 제공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이용자의 '상황'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히 표현하거나 체계화하는 것은 5.2장에서 살펴본 상황 관계도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치유서는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고 이용자들 또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치유서에 접근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분류 체계화 혹은 다중의 카테고리 부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꼭 필요하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특정한 목적과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있어 카테고리는 치유서의 분류와 함께 키워드의 역할을 하며, 이용자의 접근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접근효율성과 접근최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치유서에 대한 다양한 범주개발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중의 카테고리의 필요성과 다중 카테고리의 부여 방법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에 저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황별 복수 카테고리의 제공에 대한 제안과 방법론을 다음 연구의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 고 문 헌

- 김수경. 2010.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독서치료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241-268.
- 김순화. 2004.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울산남부 도서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 김정근. 2004.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출판저널』, 5: 148-149.
- 김정근 외. 2009. 『독서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체험형 독서치료 이야기』. 파주: 한울 아카데미.
- 곽철완. 2013. 한국 인터넷서점 분류체계 연구: 카테고리화 도서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221-247.
- 남산도서관. 2007-2014. 『독서치료 자료집: 상황별 독서목록 수록』. 서울: 남산도서관.
- 신민섭 외. 2004. 가정 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11-636.
- 신재주. 2004. 우리나라 위기가정에 관한 연구: 이혼문제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정책』, 18: 91-115.
- 이영식. 2006.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학지사.
- 이현실. 2010.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79-192.
- 원동연, 유혜숙, 유동준. 2013. 『5차원 독서치료』. 파주: 김영사.
- 한윤옥. 200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황 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5-26.
- 한윤옥. 2004.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Ⅱ: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 예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49-275.
- Abdullah, Mardziah Hayati. 2002. "Bibliotherapy." *ERIC Digest*, 1-6.
- Arulanantham, S. and S. Navaneethakrishnan. 2013. "Introducing Bibliotherapy in Public Libraries of Jaffna district: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University Librarians Association of Sri Lanka*, 17(2): 104-118.
- Crothers, S. 1916. "A Literary Clinic." *The Atlantic Monthly*, 118(3): 291-301.
- Gelles, RJ and MA. Straus. 1979.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Journal of Social Issue*, 35: 15-39.
- Mohr, Carolyn, Dorothy Nixon, and Shirley Vickers. 1991. *Books that heal: A whole language approach*, Englewood, Colorado: Teacher Ideas Press.
- Rubin, Rhea Joyce. 1978. *Using bibliotherapy: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Phoenix, AZ: Oryz Press.
- Schrank, Frederick A. and Dennis W. Engels. 1981. "Bibliotherapy as a counseling adjunct:

Research findings.” *Th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143-147.

[ 참고사이트 ]

부산대학교 도서관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online]. [cited 2015.5.20].

〈<http://pulip.pusan.ac.kr/bbs/Bbs.ax?bbsID=5>〉.

우리말 시소러스 [online]. [cited 2015.5.20]. 〈<http://www.ontorus.net>〉.

한국도서관협회의 상황별독서목록(증보편) [online]. [cited 2015.5.20].

〈[http://www.kla.kr/jsp/fileboard/refer\\_data.do?procType=view&f\\_board\\_seq=42897](http://www.kla.kr/jsp/fileboard/refer_data.do?procType=view&f_board_seq=42897)〉.

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nline]. [cited 2015.5.20].

〈[http://www.abc-clio.com/ODLIS/odlis\\_jk.aspx](http://www.abc-clio.com/ODLIS/odlis_jk.aspx)〉.

Bibliotherapy [online]. [cited 2015.5.20].

〈[http://www.ldonline.org/ld\\_store/bibliotherapy/eric\\_digest82.html](http://www.ldonline.org/ld_store/bibliotherapy/eric_digest82.html)〉.

Amazon [online]. [cited 2015.5.20]. 〈<http://www.amazon.com>〉.

The Guide to Self Help Books [online]. [cited 2015.5.20]. 〈<http://guidetoselfhelpbooks.com>〉.

goodreads [online]. [cited 2015.5.20]. 〈<http://www.goodreads.com>〉.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Han, Yoon-Ok. 2003.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5-26.

Han, Yoon-Ok. 2004.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38(3): 249-275.

Kim, Jung-Gun. 2004. “Bibliotherapy story of Kim Jung-Gun.” *Pubishing Journal*, 5: 148-149.

Kim, Jung-Gun et al. 2009. *Experience-oriented Bibliotherapy*. Paju: Hanul Publishing Group.

Kim, Soo-Kyoung. 2010. “The Task of Bibliotherapy for the Expansion of Library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241-268.

Kim, Soon-Hwa. 2004. *A StudyoftheOperationontheBibliotherapyProgram in Public Libraries:*

*A case study of Ulsan NamBu Library*. Ph.D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Kwak, Chul-Wan. 2013. “A Study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Online Bookstore in Korea: Categories

and Book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47(1):

221-247.

- Lee, Yong-Sik. 2006. *How do bibliotherapy*. Seoul: Hakjisa.
- Lee, Hyun-Sil. 2010. "A Basic Study of Subject Catalogue Related to Bibliotherapy in the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79-192.
- Nam-San Library. 2007-2014. *Bibliotherapy List*. Seoul: NamSan Library.
- Shin, Min-Sup et al. 2004.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Spouses and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23(3): 611-636.
- Shin, Jae-Joo. 2004. "A study on families at stake - focusing on divorce issue." *Local Welfare Policy*, 18: 91-115.
- Won, Dong-Yeon, Hae-Sook Yoo, and Dong-Jun Yoo. 2013. *Five-dimensional Bibliotherapy*. Paju: Gimmyoungsa.

[부록 1] 독서치료 독서목록내의 상황 및 증상 용어간의 비교와 매핑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남산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정신건강	성 인	정신건강/ 마음의 상처	정신건강	성 인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성장의 아픔			마음의 상처 에 대한이해		성장의 아픔	
어른들의 몰이해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	
					생활 속의 상처	
			상담심리			
			내적치유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성격과정서	마음의 평화*
		직장/ 성공/사회			직장/사회	슬럼프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기계발*			성공/자기계발
			성취감			
			개인성장			
대인관계		가정/ 부부관계	인간관계		가정/ 부부관계	여자와 남자*
여자와 남자			여자와 남자			가정위기
가정폭력						가정폭력
결혼과 이혼			이혼			독신
			부부			
부모와 자녀		가정/ 가족관계	복합가정		가정/ 가족관계	아들과 딸
가족			자녀			부모*
			부모*			가족일반
	가족일반		가족일반			
나이듦	건강/ 질병/죽음	역할모델	건강과 질병, 죽음	나이듦		
삶과 죽음		죽음		삶과 죽음		
		신체장애*		장애		
		건강				
		노년				
상실감	정서	중년	성격과 정서	슬럼프*/상실감		
화/분노		슬픔		화*/분노/증오		
우울		분노		우울증		
용서		우울증		용서*		
		용서				
		배려*				
사랑				대인공포증		
				사랑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남산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울음		
강박			강박		강박증
			두려움		
불안			불안		
		자아/ 성격	자아정체감*		
성인아이			성인아이		성인아이
			자아관		
			자존감*		
					인터넷 중독*
자아찾기					자아 찾기
자기존중			자기존중		
			마음의 평화		
	어 린 이 / 청 소 년	청 소 년 일 탈		청 소 년	자아정체성*
					신체장애*
			사이버중독		인터넷 중독*
			핸드폰중독		휴대폰 중독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출		성문제
			게임중독		
			중독*		
			사이버폭력		
			가 족 관 계		부모*
		형제		형제/자매	
				가난/역경	
				이혼/재혼	
				입양	
		자 아/ 진 로	역기능 가정	어 린 이	자아존중감/정체성*
			자아정체감*		용기/자신감
					시춘기
			진로		진로탐색
			자존감*		
			자기개발*		
				여자/남자*	
				성역할	
	신 체/ 성 문 제		어 린 이	외모	
		신체장애*		성	
		시춘기성		신체장애*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남산도서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학교	성폭력	학교	학교	학교부적응/발표 선생님		
		학교부적응					
학교							
		학교부진					
		성적·입시					
		친구				대인관계	친구
							이성친구
		왕따					왕따
							전학/이사
	교사와의 관계						
	교사	학교	선생님*				
		학대/폭력 / 성폭력	학대				
성폭력	신체/ 성문제		성폭력*	성폭력			
중독	청소년일탈	중독*		중독			
	정서	자신감	정서문제	정서문제	슬픔*/감정조절		
		자율성					
		배려*					
		습관					
감정 관리		감정					
		자아정체감*					
		자존감					
		인성					
		화*/스트레스*					
		두려움					
		심술					
		정직					
		용서*					
		주의집중력					
		죽음					
		정서장애					
가부장사회							
소통							
일상의 벽							
자기학대							